

이재린(광주성덕초3)
이지백(광주극락초3)
이재민(빛고을초3)
이한결(광주교대광주부설3)
임고은(경양초4)
장서은(살레시오초4)
장아영(효덕초4)
장희원(백운초3)
전경화(신용초4)
전희령(문산초3)
정유민(광주진남초4)
정주하(광주서초3)
정채민(선창초4)
정태영(문산초3)
조원영(서광초4)
조윤설(신용초4)
조현민(광주교대광주부설3)
조형서(살레시오초3)
조휘동(살레시오초3)
지유성(광주송원초4)
진소정(효광초3)
최민규(광주산정초3)
최시후(장산초3)
최현지(신용초4)
한지호(지평초3)
허주원(효덕초3)
황중현(살레시오초3)

◇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범승연(조봉초5)

▲ 금상

김준형(광주송원초5)
김도연(광주송원초6)
조주미(광주학강초6)
이승진(대자초6)
이서영(불로초5)
이유지(살레시오초6)
윤이진(살레시오초6)
안유준(서일초5)
나명은(송정서초6)
송하림(송정서초6)
안시현(조봉초5)
이다연(조봉초5)
최준아(조봉초6)
최예인(지평초5)

▲ 은상

강서연(효덕초6)
김기량(광주교대광주부설6)
김민승(광주교대광주부설6)
김윤서(한울초5)
김협의(일곡초5)
류시연(광주송원초5)
박고은(운남초5)
박민영(금구초5)
박준민(광주송원초6)
박지민(광주송원초5)
박지후(장산초6)
반정민(살레시오초5)
서보미(일동초5)
송차민(빛가람초5)

이이준(광주송원초6)
이현오(광주송원초5)
임지아(광주삼육초5)
장영주(장산초5)
정승화(광주송원초5)
정인아(지평초5)
정지우(장산초6)
최서이(운리초5)
최정원(삼육초5)
한전주(광주장덕초6)

▲ 동상

국승희(진월초6)
김다빈(한재초5)
김다인(송정서초6)
김민서(진제초5)
김민영(광주고실초5)
김보현(운남초5)
김시영(마지초6)
김에서(광주북초6)
김재훈(유촌초6)
김종윤(광주금구초6)
김지혜(광주송원초6)
김태희(서광초6)
박규리(수문초5)
박소정(광주학강초5)
박준원(조봉초5)
박희연(효덕초6)

◇ 중등부 3학년

▲ 금상
김서현(광주동성여자중3)
유재연(금호중앙중3)
조희우(월봉중3)

▲ 은상

박향기(광주동신여자중3)
윤도아(운암중3)
정다희(월봉중3)
최민영(장덕중3)

◇ 고등부 1.2학년

▲ 최고상
류재정(수원고1)

▲ 금상

구현우(광주예술고2)
김하린(병진고2)
김지수(광주예술고2)
이수현(조대여자고1)

▲ 은상

석정현(광주예술고2)
손정우(광주예술고1)
정다운(광주여자고1)
채수진(광주예술고2)

김규린(우산중1)
안찬경(문산중1)
양예슬(상무중2)
이유빈(수원중2)
이하운(나산실용예술중1)
조원나(호남삼육중2)

▲ 동상

김다빈(운암중1)
김새누(봉황중1)
김소인(월계중2)
김수진(비야중2)
박서연(운암중2)
박소연(용두중2)
방대한(수원중1)
이은지(운남중1)
이은지(광주송원중1)
조사론(일신중1)
최은유(금호중앙중1)
최지민(수원하나중1)

◇ 중등부 3학년

▲ 금상
김서현(광주동성여자중3)
유재연(금호중앙중3)
조희우(월봉중3)

▲ 은상

박향기(광주동신여자중3)
윤도아(운암중3)
정다희(월봉중3)
최민영(장덕중3)

▲ 동상

박금주(수원중3)
양나경(신용중3)
양정인(대자중3)
이서진(문흥중3)
진주연(봉산중3)

◇ 고등부 1.2학년

▲ 최고상
류재정(수원고1)

▲ 금상

구현우(광주예술고2)
김하린(병진고2)
김지수(광주예술고2)
이수현(조대여자고1)

▲ 은상

석정현(광주예술고2)
손정우(광주예술고1)
정다운(광주여자고1)
채수진(광주예술고2)

일러스트
칸만화·캐릭터

〈심사위원〉
양세혁(조선대 교수)
이진희(순천대 교수)

일러스트

◇ 중등부

▲ 금상
양민하(산정중2)
전여진(운남중3)

▲ 은상

박재운(정광중3)
이호명(금호중1)

▲ 동상

김희림(동아여자중3)
이빛나(장덕중2)
이지호(수원중3)
조도현(고려중3)

◇ 고등부

▲ 금상
김근송(풍암고1)
염지아(전남여자고2)
임미리(전남여자고2)
전규민(송원여자고2)
주다희(동아여자고2)

▲ 동상

김효정(금호중앙여자고2)
박수아(수원고1)
송명주(살레시오여자고2)
이유리(대성여자고3)
임선영(대성여자고2)
조선화(서진여자고2)

칸만화

◇ 중등부

▲ 동상
이서경(금구중3)

◇ 고등부

▲ 금상
고소연(살레시오여자고3)
김수연(빛고을고3)
김예슬(전남여자고3)
김지현(광주제일고3)
남은서(살레시오여자고1)
이찬희(대성여자고3)
정훈서(국제고3)

▲ 은상

김미진(대광여자고3)

김소현(광주경신여자고3)
김정영(문정여자고3)
박나현(풍암고3)
박진미(전남여자상업고3)
오세나(고창여자고3)
이라빈(송원여자고2)
이세윤(전남여자고3)
주예나(명진고3)
주은진(광주여자고3)

▲ 동상

김미르(광주경신여자고3)
박수정(전남예술고3)
배다희(금호중앙여자고3)
배한서(광주중앙여자고3)
서지현(동아여자고3)
손지우(호남삼육고3)
손하영(광주경신여자고3)
오민승(승덕고3)
오세라(성덕고3)
이세현(광주중앙여자고3)
이혜인(광주경신여자고3)
조성민(2000년생)
주해든(수원고3)

캐릭터

◇ 중등부

▲ 금상
강승우(광주동명중3)

▲ 은상

송지아(광주송일중2)
원채연(용두중3)
정다운(월봉중1)

▲ 동상

서기찬(일신중3)

◇ 고등부

▲ 최고상
서민영(삼육고2)

▲ 금상

장부경(대성여자고3)

▲ 은상

이나린(동아여자고1)
이지원(장덕고1)
최성호(광주동성고3)

▲ 동상

김시영(금호중앙여자고3)
나혜선(운남고1)
박권희(전남여자고2)
송은별(조대여자고2)
오서인(장덕고2)
이재영(정광고2)
임세현(명진고3)
정지수(설월여자고2)

※장려상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예술가 삶 다룬 다큐, 광주극장서 만난다

‘류이치 사카모토:코다’ 등 14일 상영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 TOP3에 꼽힌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아티스트 류이치 사카모토를 담은 ‘류이치 사카모토:코다’ 등 올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14일 광주극장 스크린에 오른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은 세대를 초월한 2명의 아티스트가 만나 펼치는 아트멘터리다. 88세 여성감독 아네스 바르다와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JR은 포토트릭에 몸을 싣고 프랑스 곳곳을 누비며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을 담는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발걸이 끊긴 탄광촌, 폐가, 부둣가와 공장 등은 물론 언제나 봄비는 도심 속까지 특정 장소만이 갖고 있는 사연에 얼굴벽화를 더해 더욱 아름답게 담는다.

‘류이치 사카모토:코다’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아티스트로서의 정점에서 활동하던 2012년부터 이후암 판정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2014년을 거쳐 2017년 새로운 앨범 ‘async’을 발매하기까지 5년의 시간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 안에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고 변화해나가는 과정과 그 과정을 예술로 창조해 나가는 모습들이 담겨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음악이라고 믿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철학이 그의 작업에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그리고 그 소리들은 사카모토를 통해 어떤 멜로디로 탄생되는지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네마 가이드 맵’ 6월 추천작은 김형중 문학평론가가 추천한 프랑수와 오종 감독의 ‘두 개의 사랑’이다. 14일 오후 7시 영화 상영 후 김형중 문학평론가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

의 토크시간이 마련된다. ‘두 개의 사랑’은 쌍둥이 형제를 오가며 사랑을 나누는 여자 ‘클로에’를 통해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고급스럽게 풀어낸 세슈윤 스타일러로 조이스 캐롤 오츠의 소설 ‘쌍둥이의 삶’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임란 때 호남 지켜낸 김천일의 생애 답아

‘건재 김천일 전집’ 2권 출간

나주 출신 건재(健齋) 김천일(1537~1592) 선생은 임란 당시 의병의 ‘장의’(倡義)의 깃발을 호남에서 처음 든 인물이다.

의병을 모아 서울로 올라가, 수원 독성산성전투를 거쳐 금령전투를 치렀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강화도’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 조정과 백성 사이의 끊어졌던 통로를 회복시켰다. 실질적인 서울 수복의 길을 마련한 것도 김천일의 공로였다.

본관은 언양이며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일찍 부모를 여윈 까닭에 외조모 슬하에서 자랐다. 외조모의 삼년상을 치르느라 얻은 한병(寒病)이 평생 고질병이 될 만큼 효성이 지극했다.

그뿐 아니라 후일 이항 선생의 수제자로 성장해 당대 호남의 뛰어난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 미암 유희춘 등의 총애를 받았다.

공직에 나와서는 경상도도사, 순창군수, 담양부사, 수원부사, 사헌부지평 등의 벼슬을 역임하기도 했다.

건재 선생의 생애와 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기사를 집대성한 전집이 출간됐다. 모두 2권으로 발간된 ‘건재 김천일 전집’(문예원·사진)은 새롭게 번역, 편집, 주해를 거쳤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파견 교수인 김익두 전북대 교수와 전북대 허정주 박사가 작업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김천일 선생은 임란 당시 마지막 전투인 ‘2차 진주성 전투’를 통해 ‘호남’을 지켜냈다. 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의 토대는 ‘호남’을 튼튼히 보유했던 건재 선생 공로로 본다. 책을 번역한 이들은 “이러한 사실은 역사서의 수많은 기록과

증언들을 통해 확증되고 있으나, 이러한 선생의 뚜렷하고 드높은 공로는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본다.

선생의 업적은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120여 차례 언급된 만큼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2권의 실록에 기록된 김천일 선생에 관한 기사는 뚜렷하게 이를 방증한다.

저자들은 건재의 삶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다섯 가지를 꼽는다. 인품, 학문, 공직수행, 의병활동, 애국충절이 그것이다.

또한 “그가 남긴 인품과 업적들은 그 어느 면에서도 조선시대의 사표가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